

Health Manager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따뜻한 노력

CJ제일제당 양산공장
보건관리자

이지연

이달의 한마디 

“보건관리자는 노동자의
튼튼한 안전 방어막이자,
건강지킴이입니다.”

혁신적인 DNA를 바탕으로 글로벌 식품시장을 향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CJ제일제당 양산공장. 단순히 밀가루를 생산하는 곳을 넘어,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곳에서 보건관리자는 공장 구성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끊임없는 지식 습득과 노력으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로서 역량을 쌓아온 이지연 보건관리자는 공장 구성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글·사진 박민승 부산지역본부 사내기자



안전환경팀의 건강 파수꾼

하얀 가운을 입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던 응급실의 간호사는 이제 밀가루 향 가득한 공장에서 노동자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수호천사가 되었다. 이지연 보건관리자는 우연한 기회에 산업보건의 길을 선택했지만, 그녀의 뜨거운 열정은 누구보다 빛났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됨에 따라 기업의 안전·보건·환경 관리와 예방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지연 보건관리자가 대학병원에서 쌓은 풍부한 임상 경험은 현장에서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담당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 변화하는 법적 요구사항에 맞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꾸준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보건관리자는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검진, 작업환경개선, 작업환경측정, 유해화학물질 관리,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한 공학적 개선, 밀폐 공간 보건 프로그램 운영 등 한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

CJ제일제당 안전환경팀은 총 5명의 부서원이 ‘원팀’ 정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전기 및 소방 전문가이신 팀장님을 비롯해, 안전 총괄을 맡고 있는 안전관리자, 보건 총괄을 맡고 있는 저, 환경 전반을 책임지는 환경 담당자, 그리고 올해 9월 소방을 전담하기 위해 합류한 소방전문 담당자까지, 총 5명의 어벤저스 팀이 구성되었습니다.”

CJ제일제당 안전환경팀은 ‘모든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는 정신으로 현장만을 바라보며 나와 동료들 지키고 나아가 사업장을 지키기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코로나19의 그림자 속
빛나는 헌신**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모두의 일상을 뒤 흔들었고, 이지현 보건관리자에게는 더욱 긴박한 상황이었다. CJ제일제당 양산공장이라는 거대한 배를 이끄는 선장처럼, 수많은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애썼다. 식품 제조업 특성상, 코로나19는 단순한 감염병을 넘어 생산 라인의 마비와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였다. 이에 CJ제일제당은 철저한 방역체계를 구축했다. 그 중심에는 이지현 보건관리자가 있었다.

“양산 공장 내 확진자가 최소화되어 생산 가동 중단 제로화를 달성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지현 보건관리자는 여러 가지로 까다롭고 힘든 환경 속에서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에 참여한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했다.

 **소음과 분진의
그림자를 걷어내다**

CJ제일제당 양산공장은 전사 최초로 노동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소음 및 분진 지도(Map)를 제작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소음 발생장비를 캡슐화하여 소음을 저감하고, 소음 발생 구역별로 맞춤형 보호구를 지급해 노동자들의 청력 보호에 힘썼다. 마치 귀마개를 착용한 것처럼, 소음으로부터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소음 감소에 그치지 않고, 분진관리, 근골격계 질환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학적인 개선을 도입하며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인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다. 특히 중량물 취급에 있어 인간공학적 위험요소를

“

매일 아침, 부서원들과 함께 안전보건 관련 현안을 공유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특히 매주 화요일은 ‘RISK Management Day’로 지정하여 전체회의를 통해 위험요소를 찾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며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

줄이기 위해 소프트 웨어러블 로봇(인간공학적 보호구)을 도입하여 신체적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눈에 띄는 효과는 아직 미비한 단계지만, 소음 개선 활동처럼 올바른 개선 작업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끊임없이 개선을 추구하는 노력은 마치 정원사가 잡초를 뽑고 꽃을 가꾸듯, 더 나은 작업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과도 같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작업환경 개선을 넘어, 노동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마음을 치유하는 연구 심리상담소 ‘마음연고’

CJ제일제당 양산공장은 건강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건강증진 우수사업장 인증을 15년 연속 획득하고 있다. 이는 건강증진 활동에 대한 꾸준한 헌신을 보여주는 사례로, 올해는 특히 전사 최초로 ‘마음연고’라는 사내 심리상담소를 개설하여 임직원들의 정신 건강증진에 더욱 힘을 쏟았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직원들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진심 어린 노력의 일환이었다. ‘마음연고’는 단순한 상담 공간을 넘어,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회복하는 안식처로 자리 잡았다. 외부 기관에서 초빙된 전문 상담사의 따뜻한 상담은 임직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으며, 상담을 받은 임직원들은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고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앞으로도 CJ제일제당 양산공장은 지속적인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마음연고’는 단순한 복지 시스템을 넘어, 임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나아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